

# 건강서적의 문제점과 선택방법

일부 건강관련서적은 잘못된 건강지식을 파급시켜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 근 어느 대형서점에서는 건강서적이 베스트셀러로 연일 사람들의 손에 오르내리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건강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의 증폭을 읽을 수 있다. 신문, 방송, 잡지, 서적의 발행 및 방송 횟수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한 사람들의 욕구 상승에 따른 기사와 내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신문, 방송, 잡지, 서적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최근 음성정보 서비스의 다양화와 세분화된 의학정보들만 보아도 통신정보 등의 매체쪽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서야 건강정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예로부터 생노병사의 숙명으로부터 초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에 건강에 관한 관심은 갈수록 클 수 밖에 없고 사회

와 경제수준의 발전에 따라 종래에는 자주적이고 실천적인 의지쪽으로 건강한 삶의 추구에 대해 사람들이 적극성을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와 보건 관계의 건강기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수처럼 범람하는 건강정보가 자칫 혼란된 정보공해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역시 일각에서는 함께 늘어가는 듯하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서적 조차 세분화, 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백과사전식 건강안내에 치중했던 건강관련서들이 최근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신체기관별, 연령별, 증상별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책의 내용도 과거처럼 단편적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웬만한 질병은 스스로 조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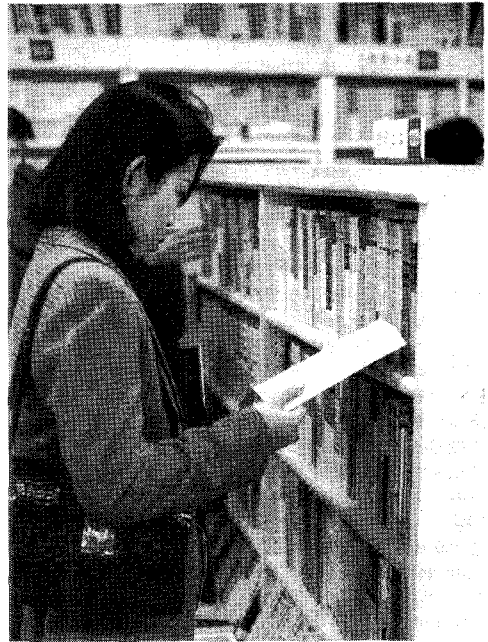
보를 담고 있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종류는 이미 베스트셀러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도 있다. 정신과 의사의 책, 민간체질요법자의 신문연재를 묶은 책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불과 4~5년 전만 해도 그리 많지 않던 건강관련 서적 및 잡지가 문화수준 향상 및 각종 성인병 발병률의 상승과 함께 출판이 급증, 현재에는 6백여종이 시중 서점에서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건강서적의 출판급증 추세는 요즘들어 더욱 심해져 하루에 수십권의 신간이 쏟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건강서적 붐은 소비자의 수요와 맞물려 출판사의 영업적 수익 또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시내 대형서점의 경우 하루 3백여권이 팔리는 등 건강서적 및 잡지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관련 서적은 학술적인 전문서적에서부터 기초건강, 정신건강, 외국서적의 번역물을 비롯하여 식이요법, 민간요법, 기공, 단, 여러가지 약초 등 전통건강비법을 소개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병원이용 안내서적, 각 질환별 치료서 등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간장질환, 비만, 심장질환, 위질환 등 각종 성인병과 관련한 책들도 눈에 띄게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성인병 관련서적은 전체 건강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출판



사의 경우 성인병시리즈물을 30여권을 만들어낸 곳도 있다.

이같은 단행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한 월·계간 잡지의 발행도 많아져 건강서적의 출판붐에 나름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건강관련잡지는 5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잡지는 건강과 생명, 건강다이제스트, 건강단, 건강라이프, 건강만세, 생약과 건강, 월간당뇨, 간호저널, 치과임상, 약국, 의약정보, 한방과 건강 등으로 주제별 세분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송쪽에서도 각 지역 민영방송의 개국과 함께 각종 케이블 TV의

## 기획취재

출현으로 말미암아 시청자들의 건강 욕구를 다양한 정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고 이를 보편화하는 일을 우리의 정치나 경제를 통해서 도모해 나간다고 한다면 보건과 의료는 사회구성원인 인간 개개인의 건강함을 지탱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사회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공급보다 수요가 지나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속단의 오보나 혼돈이 있을 수 없도록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적이고 보다 신뢰성을 견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쉽게 설명하려는 나머지 질환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너무 단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치료기술을 너무 과장되게 선전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정보는 어쩌면 신문, 방송, 잡지, 서적을 포함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부 건강보조식품 및 민간요법 제조제 등을 비밀리에 파는 업자 및 업체들 사이에 상품선전용 책자를 마치 공신력을 얻은 것처럼 출판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책의 무분별한 출판문제보다 아직 검증되지 못한 약효를 과대선전하거나, 그 약(?)으로 완치했다는 사람들의 체험담을 책으로 엮어내는 등 책을 통한 상품 판매, 나아가 책을 통한 소비자의 혼란에

책이 이용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이란 궁극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환자나 그 가족들은 무분별한 정보의 남용보다 확실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움이 아닌가 한다. 또한 병원 및 치료 전문의들은 질병의 치료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건강관련서적의 홍수가 자칫 건강노이로제환자를 만들고 나아가 잘못된 건강지식을 이해하도록 파급시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모든 의료관계 전문의들은 우려하고 있다.

영풍문고의 G씨는 “독자들이 점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가면서 자연스러운 추세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불치병도 무조건 고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책들도 문제지만 독자들이 서점에서 여러가지 책들을 비교한 다음 신중히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출판사와 출판업자와의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상업적인 고려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건강한 문화적 시각에서의 국민 건강의 다양한 정보의 힘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다.

글·편집부